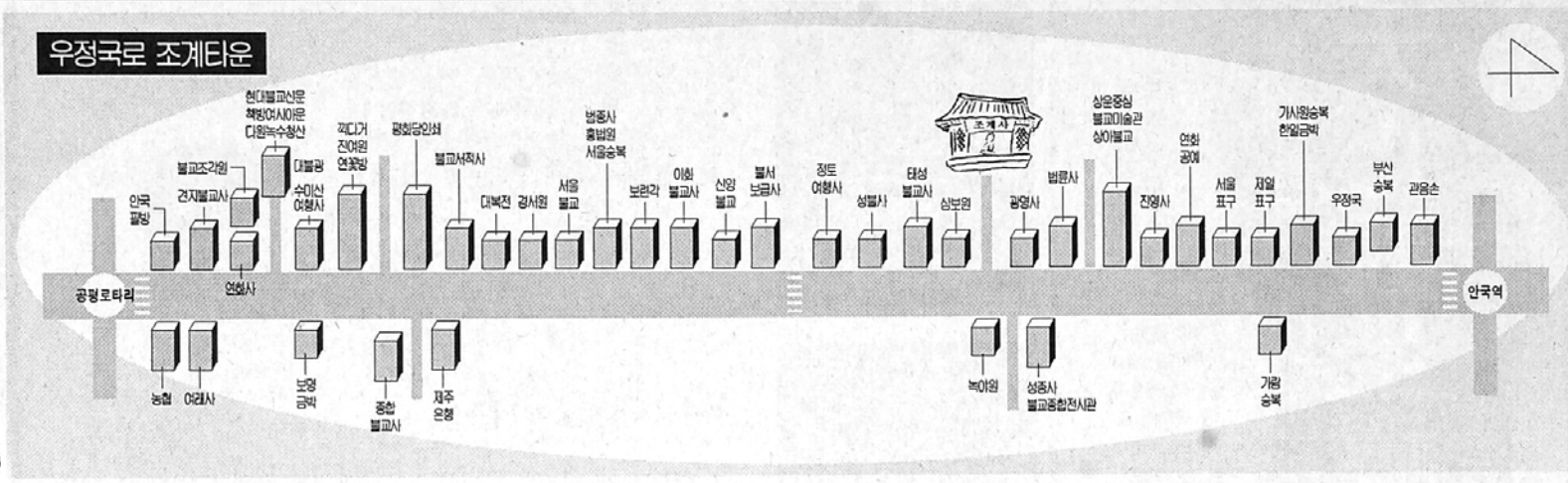
조계타운

창간1주년 특집



한집 건너 불구店…신행·포교 1번지

불교 대중화로 가는 문열이 조계타운

점포1호 '불서보급사'…80년이후 용품점 잇따라 개업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합장 "법향 가득한 거리"

종각4거리 제일은행 본점에서 안국동 로타리에 이르는 거리는 언제부터인가 행정가로명인 우정국로보다 조계타운으로 부르는 것이 더 익숙해졌다. 5백여미터에 이르는 거리에 온갖 불교용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자리잡고 있으며, 회색빛 장삼을 걸친 스님들의 모습, 합장으로 인사하는 풍경이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이 거리가 '불교타운'으로 모양을 갖추기는 30여년 전. 한국불교 포교1번지라 불리는 조계사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 타운 형성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여기에 지하철 1·3호선의 종각역과 안국역이 인접하고 있어 교통의 편리함도 한몫 거들었다.

이 거리는 조선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정한 이래 상설점포 격인 시전(市廛)이 형성된 종각네거리를 중심으로 번창했던 곳이다. 당시는 종각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3천여칸의 행랑이 조성되어 서울의 중심상가를 형성했던 곳이다. 우정총국과 궁중에서 사용하는 약과 왕이 하사하는 의약을 제조 공급하던 전의감(典醫監), 구한말 애국지사 민영환선생의 집터(지금의 조계사 육화당)가 있는 유서깊은 곳이다.

지금과 같이 40여개 점포가 잇따라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들어서다. 이때의 점포들은 '만물상'이었다. 한 점포에 염주 목탁 불상 승복은 물론 불교서적 어린이용품까지 취급했다.

한 품목만 취급해서는 장사가 안되는 것도 이유이지만, 스님들이 여러 점포를 다니며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보다는 한 곳에서 해결하려는 구매행위에 따른 것이다. 한번 맺은 인연을 중시하는 불가의 전통 때문인지 스님고객은 거의 단골손님이다. 주로 이용하는 손님도 스님이 주류를 이루었다.

지난 86년 개업한 견지불교사 대표 노순옥보살은 "관매물을 보면 여전히 스님들이 많지만 찾는 분들은 일반인들이 훨씬 많다"라며 "불교의 발전이 더디다고 하지만 그만큼 불교가 대중화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취급품목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염주하면 향나무를 둥글게 깎은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지금은 각종 열매, 심지어 투명 또는 유색의 합성수지 제품까지 나왔다. 각종 기념품의 종수 증가도 눈에 띈다. 고가의 크리스탈 제품은 이제 대중적인 상품이다. 또 선물용 또는 소지용의 호신불도 인기품목이다. 낯설지 않게 들르는 외국인의 손길이 가장 먼저 닿는 제품이 되었다. 예전에는 부처님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 호신불이나 소형 불상이 어색했으나 지금은 액세서리로도 인기를 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조계타운은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며 오늘에 이르렀다. 전통적인 불교용품점뿐만 아니라 신행활동과 연관된 점포들이 들어섰다. 수미산여행사 정토여행사가 사무실을 열어 성지순례를 이끄는가 하면, 대불광 한국불교전시관 종합불교전시관 등 불교미술·조각가들의 상설 전시매장이 자리잡아 거리의 모습을 변모시켰다. 전시장 내부도 단청을 하는 등 조계타운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해 지나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하나의 변화는 전문점의 등장. 89년 상운중심이 불교백화점으로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승복 관음손 등이 줄을 이었다. 상운중심은 매장을 도자기부 은제품부 염주부 신발부 등으로 특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서울승복사는 마네킹을 설치해 진열장을 꾸미는 등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적극적인 판매방법을 동원 주목을 끌고 있다. 요즘은 법사복을 새로이 개발 보급하고 있다. 개신교의 목사법의와 비슷해 불교의 특징을 살리지 못했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관음손은 어린이용품이 주력상품. "어린이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불교팬시용품의 개발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밝힌 관음손대표 강종중씨는 "그러나 아직까지 어린이법회가 활성화되지 않아 수요는 그리 많지 않다"며 아쉬워했다.

전통의 향훈을 느낄 수 있게 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이다. 끽다거는 차를 마시고 싶으면 누구든지 들어가 다담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차는 무료로 제공한다. 92년 개업 차보급운동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야생차만 취급하며, 예술성과 실용성이 가미된 다구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지난해 8월 개업한 전통찻집 녹수청산도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소규모법회와 세미나 등 만남의 장소로 자리잡았다.

불서전문책방 여시아문의 등장은 조계타운이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하는 계기였다. 70여평의 매장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서 3천여종을 비롯 절판본 희귀본 등 2만권의 불서를 전시 판매하고 있다. 저자와의 대화 등의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점이 늘어나면서 몇몇 점포는 업종을 특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륜사 조재효씨는 불상·불구점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팔상록 불교영험설화 강원교재를 펴내며 60년대 불교출판을 이끌었던 법륜사의 오랜 전통이 새롭게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30여년전 한 두곳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조계타운이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또다른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성운 기자



◇조계타운은 90년대 들어서면서 외형적으로 큰 변화를 보였다. 전통적인 불교용품점뿐만 아니라 여행사등 신행활동과 연관된 전문점들이 들어섰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타운 터줏대감 이봉수씨



한국불교 상징거리 "역사현장"

30여년 동안 불서 6백여종 내

조계타운 지킴이 이봉수거사(68·도서출판 보련각 대표). 지금은 40여개 점포가 어깨를 맞대고 조계사 좌우에 자리잡아 하나의 불교타운을 형성했지만 이씨가 이곳에 출판사와 서점을 연 60년대 후반은 서울의 여느 거리와 다름없었다.

그때만해도 서점은 물론 불교용품점도 몇 안되었다. 고 장경호거사가 문서포교를 위해 설립한 불서보급사가 불교타운의 1호 점포로 기록된다. 법륜사 보련각이 뒤를 이었고, 그후 태성불교사 광명사가 문을 열었다. 거리 모습도 지금과는 판이했다.

"일본식의 2층 기와집에 표구점 필방이 한집 건너 자리잡았고 불구점은 곁다리였어요. 거리도 지금보다 좁은 2차선 도로였는데, 79년 도시계획에 따라 차도와 인도가 넓혀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지요. 불교용품점이 잇따라 문을 연 것도 이때였어요."

이씨가 이곳에 보련각을 개업한 것은 68년이지만, 불서출판사업은 이보다 훨씬 앞선다. 한국전쟁 직후 서대문우체국에 근무한 1년을 빼고는 줄곧 불교책을 펴내왔다. 초발심자경문도 필사해서 볼 정도로 책이라고 부를만한 것이 없던 시절이었다.

그후 30여년 동안 이씨는 6백여종의 불서를 펴냈다. 외길로 불교출판 문화를 일궈오며 이 거리를 지켜온 것이다.

현대 한국불교의 숱한 영욕을 보아오며 그를 오늘까지 이 거리에 있게 한 것은 그의 넉넉한 삶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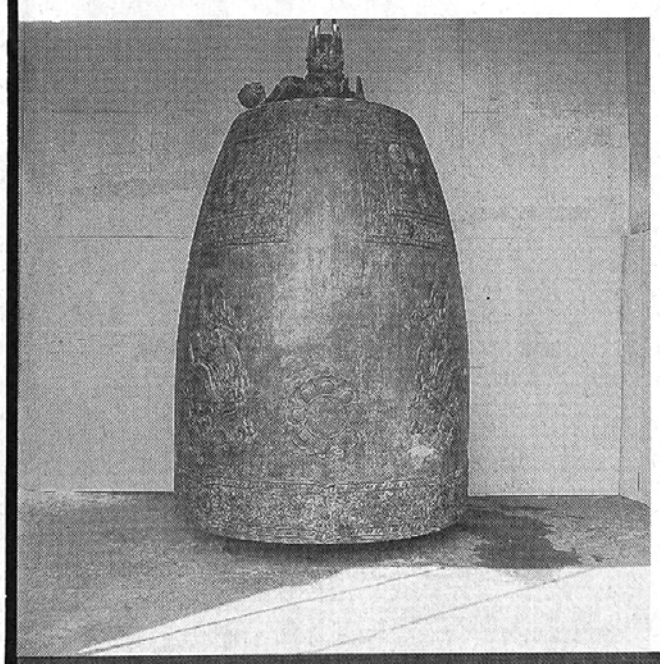
"큰 집 갖고 좋은 차 타고다니는 사람이 잘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반쪽의 행복이죠. 진짜 잘사는 사람은 몸 건강하고 건실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모두들 그렇게 살아야 해요."

아울러 이 거리가 이제는 불교인만의 거리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이씨는 "부처님 덕분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거리가 된만큼 그 고마움에 보답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을 찾아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포교사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축 창간1주년

신라범종과 고불의 재현



"범종 주조의 기술혁신과
이조부처님의 재현을 위해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연구끝에 특수주조 정밀공법을 개발하였으니
고승 대덕 스님과 사부대중의 지도편달 바라오며
을해년 한해도 불사의 현장에 창업 45주년 경험과
성실을 바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국내최대 범종주조회사 성종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2(조계사 앞)
서울사무실 (02) 733-6141
공장 (0331) 283-2083
부산지사 (051) 803-0781
대표 원광식(梵山) 합장